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취약 산업의 위축이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경제 업그레이드 및 충격 최소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모색

목 차

■ 취약 산업의 위축이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경제 업그레이드 및 충격 최소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모색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분석 방법	2
3. 분석 결과	4
4. 시사점	14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제 연 구 실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Executive Summary

□ 취약 산업의 위축이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경제 업그레이드 및 충격 최소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모색

■ 개요

최근 주력 산업들이 수요 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공급과잉과 경쟁력 저하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취약 산업의 구조조정이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켜줄 새로운 대체 산업이 단기간 내 나타나기 어려워 그 파급영향으로 성장과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산업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향후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게 될 취약 산업들의 침체가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 분석의 전제

분석을 위한 가정(전제)으로 **첫째**, 취약 대상 산업의 최종수요가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 10%만 감소하는 상황에 대응되는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둘째**, 현실성이 떨어지나 취약 산업들이 2017년 한 해 동안 동시에 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셋째**, 자료 이용 한계상 2014년의 경제 및 산업 구조가 2017년에도 유지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5대 취약 산업(분석 대상 산업)은 최근 구조적인 시장 공급과잉 문제나 경쟁력 저하 문제 등으로 침체가 장기화되었거나 현재 경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향후 구조적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5대 취약 산업은 ① 기초화학제품 제조업, ② 철강 제조업, ③ 조선업, ④ 건설업, ⑤ 해운업이 해당된다.**

■ 분석 결과

분석 결과 **첫째**, 주력 산업들이 대부분인 취약 부문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산업 공백기'에 따른 저성장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5대 취약 산업이 동시에 10%의 수요(생산)가 위축될 경우의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19조 6,000억 원의 명목 부가가치 감소효과를 가져 온다. 이는 이후 매년 경제성장률을 약 1.1%p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업을 제외하고 4대 취약 산업으로 분석할 경우 4대 취약 산업이 동시에 10%의 수요(생산)가 위축될 경우의 부가가치 명목 감소 효과는 7조 원으로 이는 이후 매년 경제성장률을 약 0.4%p 하락시키는 압력이 된다.

둘째, 5대 취약 산업이 일시에 구조조정이 될 경우 경제 전체에 연인원 32만 7,000명의 실업자가 양산된다. 5대 취약 산업 최종수요가 동시에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32만 7,000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유발할 정도의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을 제외한 4대 산업으로 분석시 8만 2,000명 고용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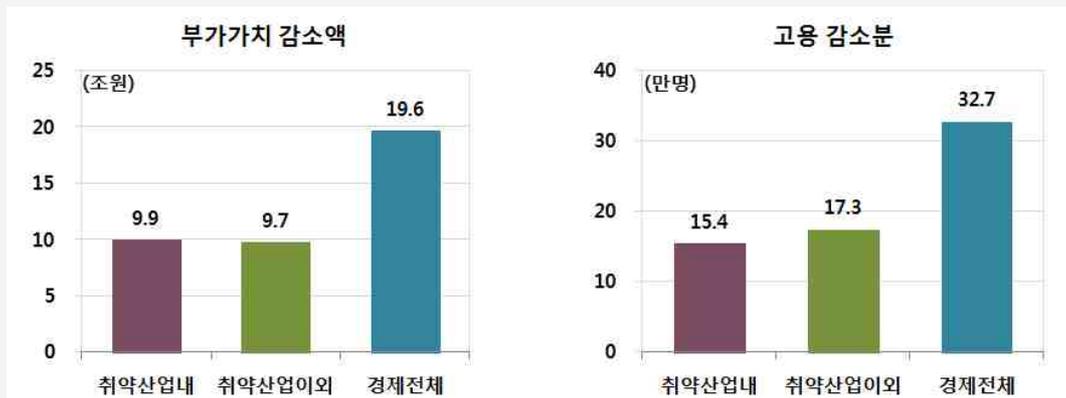
셋째, 취약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취약 산업과 이외 산업에 비슷한 규모로 유발될 정도로 파급력이 강하다. 5대 취약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동시에 10% 위축될 경우 5대 취약 산업의 부가가치 감소액은 9조 9,000억 원이며, 경제 내 이외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 감소액은 9조 7,000억 원

이다. 또한 건설업을 제외한 4대 취약 산업 최종수요가 동시에 10% 위축될 경우에도 4대 취약 산업의 부가가치 감소액은 3조 5,000억 원이며 경제 내 이외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 감소액 3조 5,000억 원과 동일한 수준이다.

넷째, 취약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는 취약 산업보다 이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5대 취약 산업내 고용 감소분은 15만 4,000명이며 이외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고용 감소분은 17만 3,000명에 달한다. 또한 건설업을 제외한 4대 취약 산업의 고용 감소분은 1만 8,000명이며 이외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고용 감소분은 6만 4,000명에 달한다.

다섯째, 5대 취약 산업 중 건설업이 가장 큰 파급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5대 취약 산업 생산 감소효과의 52.5%, 부가가치 감소효과의 64.5%, 고용감소 효과의 74.9%가 건설업으로부터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 5대 산업의 최종수요가 동시에 10% 위축시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감소액 및 고용 감소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산업연관표를 25 부문으로 자체 부문통합하여 계산된 수치.

■ 시사점

취약 부문에 대한 산업구조조정은 경쟁력 강화와 경제 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다만 산업구조조정의 대상 산업들이 경제의 주력 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주력 산업들이 대부분인 취약 부문 구조조정으로 예상되는 ‘산업 공백기’를 단축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둘째**, 구조조정 산업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나 더불어 그 구조조정이 간접 경로를 통해 파급되면서 나타나는 후방연관 산업의 부침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구조조정의 가장 큰 부작용인 실업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한 적극적인 고용안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가장 큰 파급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 구조조정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산업구조조정의 무게중심을 주력산업군의 복구될 수 없는 경쟁력 하락에 대응한 생산능력 축소가 아니라, 주력산업군을 신산업으로 채우는 구조재편(restructuring)에 두어야 한다.

1. 개 요

○ 분석 배경

- 최근 일부 국내 주력 산업들이 수요 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공급과잉과 경쟁력 저하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 주력 수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유화, 철강, 조선 등의 수출 실적이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품목에서는 중국과의 경쟁 격화가 심화
 - 한편 건설업은 부동산 경기 호조로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호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주택 부문의 공급 과잉 문제와 가계 부채 조정 우려 등으로 미래 불확실성이 증대

- 취약 산업의 구조조정이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켜줄 새로운 대체 산업이 단기간 내 나타나기 어려워 경제의 성장과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존재
 - 이에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산업의 경우 구조조정이 진행중
 - 그러나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는 기존 취약 산업의 생산 또는 생산 능력 축소에 맞추어져 있을 뿐, 해당 산업들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 특히 구조조정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취약 산업들은 하나 같이 한국 경제 성장을 지탱하는 국내 주력 산업들임
 - 따라서 만약 취약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후 새로운 대체 산업이 없을 경우 산업 공백기가 나타나면서 경제의 성장력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존재

- 이에 산업구조조정이 진행중이거나 향후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게 될 취약 산업들의 침체가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고자 함
 - 나아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를 모색해보고자 함

2. 분석 방법

○ 분석의 가정(전제)

- (가정 1) 취약 대상 산업의 최종수요가 10% 감소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
 - 최종수요의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경로가 일반적이나,
 - 본 보고서에서는 최종수요의 위축과 산업구조조정의 단행을 동일시하여 충격 요인을 산업구조조정으로 간주
- (가정 2) 현실성이 떨어지나 취약 산업들이 2017년 한 해 동안 동시에 최종수요가 10% 감소하게 되는 수준의 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
 - 여러 취약 산업이 한 해 동안 동시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분석의 편의상 최대의 부정적 영향을 추산해 보기 위하여 한 해 동안에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함
- (가정 3) 자료 이용 한계상 2014년의 경제 및 산업 구조가 2017년에도 유지되는 경우를 가정
 - 분석에 이용되는 통계가 2014년 기준 산업연관표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의 분석 결과는 엄밀하게 말하면 2017년을 대상으로 하는 결과보다는 2014년의 경제 및 산업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다만 경제 및 산업 구조는 단기간 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4년과 2017년의 구조에 큰 차이는 없다고 간주함

○ 5대 취약 산업(분석 대상 산업) 선정

- 5대 취약 산업의 선정은 최근 구조적인 시장 공급과잉 문제나 경쟁력 저하 문제 등으로 침체가 장기화되었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한정

- 5대 취약 산업으로 최근 구조조정을 겪고 있거나 향후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산업으로 ① 기초화학제품 제조업, ② 철강 제조업, ③ 조선업, ④ 건설업, ⑤ 해운업으로 한정

- 기초화학제품 제조업은 석유화학 산업중에서 석유정제업, 정밀화학제품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을 제외한 것임
- 철강 제조업은 철강1차제품, 철강가공제품을 포함
- 조선업은 선박은 물론 선박 수리 및 부분품까지를 포함
- 건설업은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부문과 토목건설 부문을 포함
- 해운업은 자료 이용의 한계 상 외항운송서비스업과 더불어 연안 및 내륙수상 운송서비스업을 포함

○ (분석 방법) 각각의 5대 취약 산업과 5대 취약 산업을 통합한 부문의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해당 산업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감소 효과를 추정

- 5대 취약 산업의 개별효과를 식별하기 위하여 2014년 산업연관표중 통합중분류 82부문을 29부문으로 부문통합하여 생산, 부가가치, 취업 감소효과를 계산

- 5대 취약 산업을 포함한 29부문에 대한 생산, 부가가치, 취업 유발계수행렬을 계산
- 취약 산업 각각 최종수요 10% 감소분에 생산, 부가가치, 취업 유발계수를 곱하여 개별 취약 산업의 생산감소액, 부가가치감소액, 취업감소분을 계산

- 5대 취약 산업간 중복효과를 배제하고 총합효과를 구하기 위하여 2014년 산업연관표중 통합중분류 82부문을 25부문으로 부문통합하여 생산, 부가가치, 취업 감소효과를 계산

- 5대 취약 산업을 1부문으로 통합하여 25부문에 대한 생산, 부가가치, 취업 유발계수행렬을 계산
- 통합된 취약 산업의 최종수요 10%감소분에 생산, 부가가치, 취업 유발계수를 곱하여 각 취약 산업의 생산감소액, 부가가치감소액, 취업감소분을 계산
- 따라서 5대 취약 산업 각각의 파급효과를 합한 값과 5대 취약 산업을 1 부문으로 하여 계산되어진 값은 차이가 존재함에 유의

3. 분석 결과

(1) 주요 분석 결과

① 주력 산업들이 대부분인 취약 부문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산업 공백기'에 따른 저성장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

- 5대 취약 산업이 동시에 10%의 수요(생산)가 위축될 경우의 부가가치 명목 감소효과 19조 6,000억 원은 이후 매년 경제성장률을 약 1.1%p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건설업을 제외하고 4대 취약 산업으로 분석할 경우 4대 취약 산업이 동시에 10%의 수요(생산)가 위축될 경우의 부가가치 명목 감소효과는 7조 원으로 이는 이후 매년 경제성장률을 약 0.4%p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은 경제의 적응력과 반발력으로 그 강도가 점차 축소하겠으나 대체 주력 산업이 등장할 때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② 5대 취약 산업이 일시에 구조조정이 될 경우 경제 전체에 연인원 32만 7,000명의 실업자가 양산

- 5대 취약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동시에 10% 위축되면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32만 7,000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유발할 정도의 충격이 발생
- 건설업을 제외한 4대 취약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동시에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8만 2,000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유발

③ 취약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취약 산업과 이외 산업에 비슷한 규모로 유발

- 5대 취약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동시에 10% 위축될 경우 5대 취약 산업의 부가가치 감소액은 9조 9,000억 원이며, 경제 내 이외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 감소액은 9조 7,000억 원으로 비슷한 수준
- 건설업을 제외한 4대 취약 산업 최종수요가 동시에 10% 위축될 경우 4대 취약 산업의 부가가치 감소액은 3조 5,000억 원이며 경제 내 이외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 감소액 3조 5,000억 원과 동일한 수준

④ 취약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는 취약 산업보다 이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

- 5대 취약 산업의 고용 감소분은 15만 4,000명이며 경제 내 이외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고용 감소분은 17만 3,000명에 달함
- 또한 건설업을 제외한 4대 취약 산업의 고용 감소분은 1만 8,000명이며 경제 내 이외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고용 감소분은 6만 4,000명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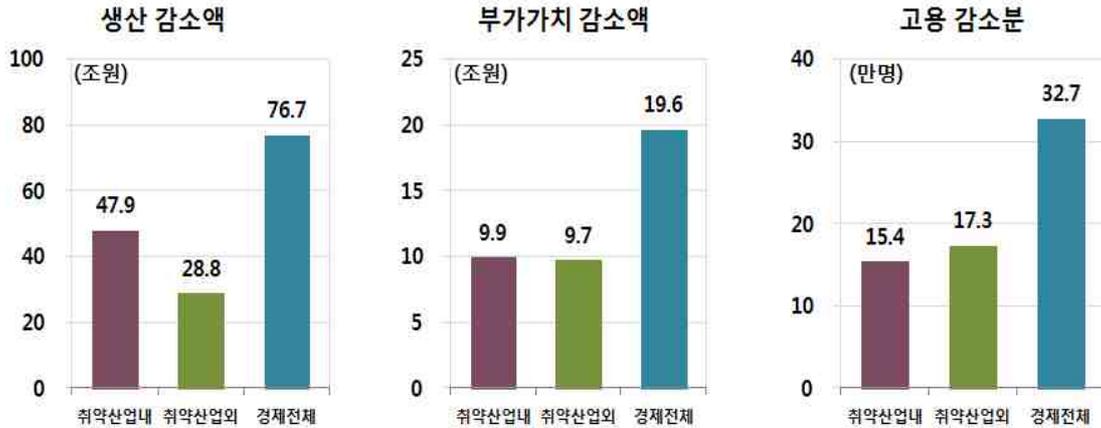
⑤ 5대 취약 산업 중 건설업이 가장 큰 파급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5대 취약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고용 감소효과 상당 부분을 건설업이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
- 5대 취약 산업의 생산 감소효과의 52.5%, 부가가치 감소효과의 64.5%, 고용감소 효과의 74.9%가 건설업으로부터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

(2) 5대 취약 산업이 동시에 위축될 경우의 영향 분석 결과

- (생산, 부가가치, 고용 파급 영향) 5대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동시에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76조 7,000억 원의 생산 감소, 19조 6,000억 원의 부가가치 감소, 32만 7,000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유발
 - 5대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76조 7,000억 원의 생산 감소 효과가 유발
 - 자기 산업의 생산 감소액은 47조 9,000억 원이며 타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생산 감소액은 28조 8,000억 원임
 - 5대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19조 6,000억 원의 부가가치가 감소 효과가 유발
 - 자기 산업의 부가가치 감소액은 9조 9,000억 원이며 타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 감소액은 9조 7,000억 원임
 - 한편, 5대 산업이 동시에 위축될 경우의 부가가치 명목 감소효과 19조 6,000억 원은 2017년 경제성장률을 약 1.1%p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
 - 5대 산업이 동시에 위축될 경우의 명목 부가가치 감소효과 19조 6,000억 원은 2017년 예상 명목 GDP의 약 1.2%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
 - 최근 5년 동안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보관업, 국내총생산 각각의 경제활동별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할 경우 2017년 경제성장률(실질GDP 증가율)의 1.1%p 감소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건설업 제외시 0.4%p 감소)
 - 5대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32만 7,000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유발
 - 자기 산업의 고용 감소분은 15만 4,000명이며 타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고용 감소분은 17만 3,000명임

< 5대 산업의 최종수요가 동시에 10% 위축시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감소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산업연관표를 25 부문으로 자체 부문통합하여 계산된 수치.

○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 5대 산업이 동시에 위축될 경우 부가가치와 고용 측면에서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산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 업으로 나타남

- 한편, 5대 산업이 동시에 위축될 경우 5대 산업 이외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도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부가가치 측면에서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산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 나타남

- 5대 산업의 위축(최종수요의 10% 감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 으로 1.4조 원의 부가가치 감소 효과가 발생
- 다음으로는 『경공업』 0.9조 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0.9조 원, 『비철금속 및 금속제품』 0.9조 원, 『금융보험』 0.7조 원의 순서임

- 또한, 5대 산업이 동시에 위축될 경우 5대 산업 이외 다른 산업의 고용에도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고용 측면에서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산업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 나타남

- 5대 산업의 위축(최종수요의 10% 감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 으로 4만 6,000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발생

· 다음으로는 『운수』 2만 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1만 7,000명, 『1차산업』 1만 6,000명, 『경공업』 1만 6,000명의 순서임

< 5대 산업 최종수요 10% 위축시 타산업에 미치는 부가가치 및 고용 감소 효과 >

(단위: 조 원, 만 명)

순위	부가가치 감소 효과		고용 감소 효과	
	산업 명칭	감소액	산업 명칭	감소분
1	도소매 및 음식숙박	1.4	도소매 및 음식숙박	4.6
2	경공업	0.9	운수	2.0
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0.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1.7
4	비철금속 및 금속제품	0.9	1차산업	1.6
5	금융보험	0.7	경공업	1.6
6	운수	0.6	사업지원서비스	1.1
7	인프라	0.6	비철금속 및 금속제품	0.8
8	비금속광물	0.6	금융보험	0.7
9	전기전자기계	0.4	비금속광물	0.5
10	부동산 및 임대	0.4	문화 및 기타서비스	0.5
11	1차산업	0.4	기계	0.5
12	기계	0.4	ICT서비스	0.4
13	사업지원서비스	0.3	인프라	0.3
14	ICT서비스	0.3	전기전자기계	0.3
15	석유정제	0.2	부동산 및 임대	0.2
16	정밀화학	0.2	보건 및 사회복지	0.2
17	문화 및 기타서비스	0.1	정밀화학	0.1
18	보건 및 사회복지	0.1	정밀기기	0.1
19	정밀기기	0.1	공공행정 및 국방	0.1
20	공공행정 및 국방	0.1		
21	자동차	0.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산업연관표를 25 부문으로 자체 부문통합하여 계산된 수치.

2) 부가가치 감소액 1,000억 원 미만 및 고용 감소 1,000명 미만 업종은 생략.

(3) 5대 취약 산업별 위축의 영향 분석

○ (기초석유화학산업)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12조 2,000억 원의 생산 감소, 2조 3,000억 원의 부가가치 감소, 2만 5,000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유발

- 기초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12조 2,000억 원의 생산 감소 효과가 유발

· 자기 산업의 생산 감소액은 8조 4,000억 원이며 타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생산 감소액은 3조 8,000억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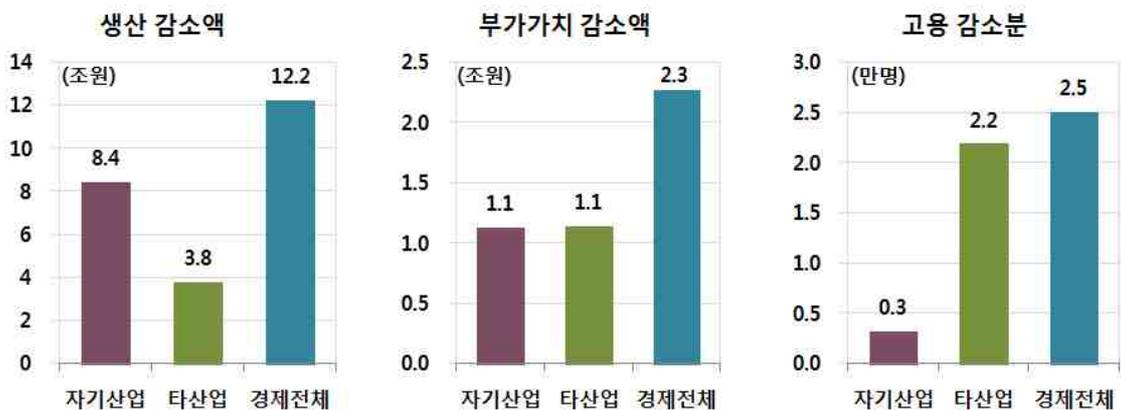
- 기초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2조 3,000억 원의 부가가치 감소 효과가 유발

· 자기 산업의 부가가치 감소액은 1조 1,000억 원이며 타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 감소액은 1조 1,000억 원임

- 기초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2만 5,000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유발

· 자기 산업의 고용 감소분은 3,000명이며 타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고용 감소분은 2만 2,000명임

< 기초석유화학산업의 최종수요 10% 위축시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감소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산업연관표를 29 부문으로 자체 부문통합하여 계산된 수치.

○ (철강산업)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8조 원의 생산 감소, 1조 4,000억 원의 부가가치 감소, 1만 4,000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유발

- 철강산업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8조 원의 생산 감소 효과가 유발

· 자기 산업의 생산 감소액은 6조 1,000억 원이며 타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생산 감소액은 2조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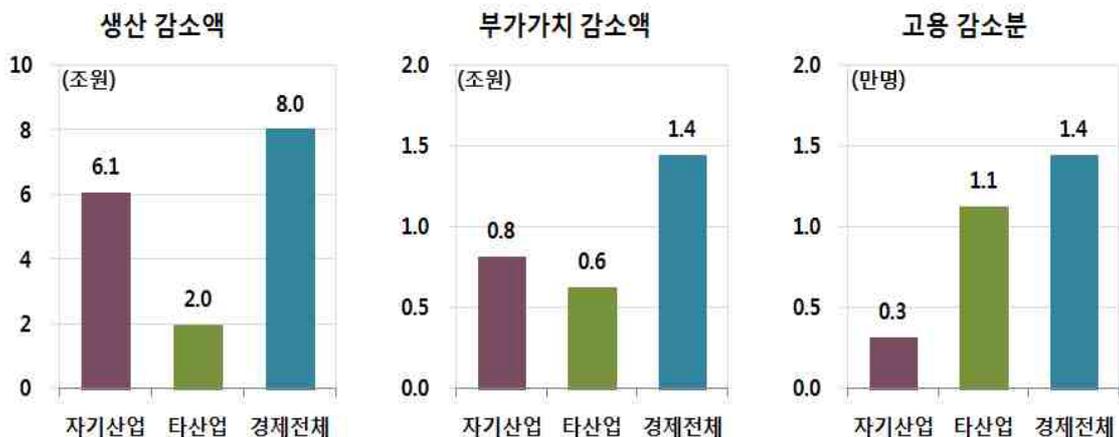
- 철강산업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1조 4,000억 원의 부가가치 감소 효과가 유발

· 자기 산업의 부가가치 감소액은 8,000억 원이며 타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 감소액은 6,000억 원임

- 철강산업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1만 4,000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유발

· 자기 산업의 고용 감소분은 3,000명이며 타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고용 감소분은 1만 1,000명임

< 철강산업의 최종수요 10% 위축시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감소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산업연관표를 29 부문으로 자체 부문통합하여 계산된 수치.

○ (조선업)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11조 7,000억 원의 생산 감소, 2조 7,000억 원의 부가가치 감소, 4만 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유발

- 조선업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11조 7,000억 원의 생산 감소 효과가 유발

· 자기 산업의 생산 감소액은 5조 5,000억 원이며 타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생산 감소액은 6조 3,000억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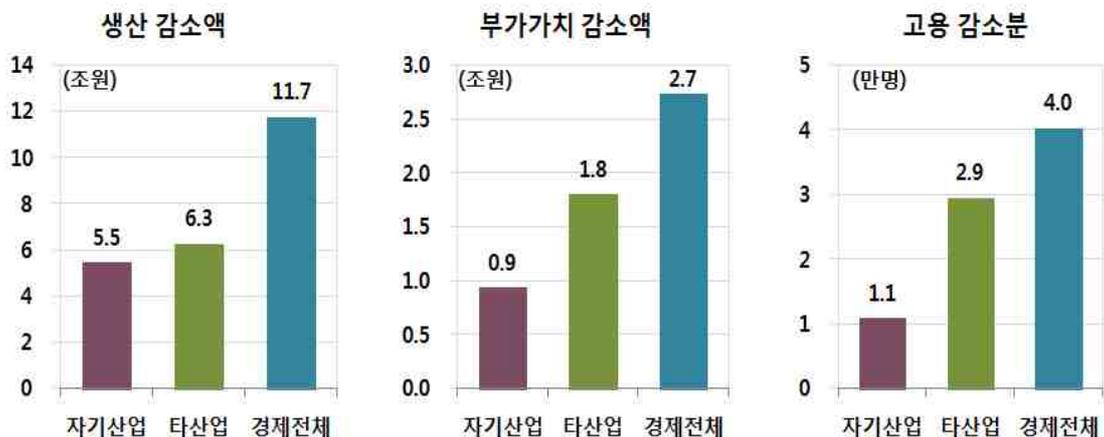
-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2조 7,000억 원의 부가가치 감소 효과가 유발

· 자기 산업의 부가가치 감소액은 9,000억 원이며 타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 감소액은 1조 8,000억 원임

-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4만 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유발

· 자기 산업의 고용 감소분은 1만 1,000명이며 타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고용 감소분은 2만 9,000명임

< 조선업의 최종수요 10% 위축시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감소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산업연관표를 29 부문으로 자체 부문통합하여 계산된 수치.

○ (건설업) 건설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40조 9,000억 원의 생산 감소, 13조 4,000억 원의 부가가치 감소, 26만 6,000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유발

- 건설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40조 9,000억 원의 생산 감소 효과가 유발

· 자기 산업의 생산 감소액은 18조 3,000억 원이며 타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생산 감소액은 22조 7,000억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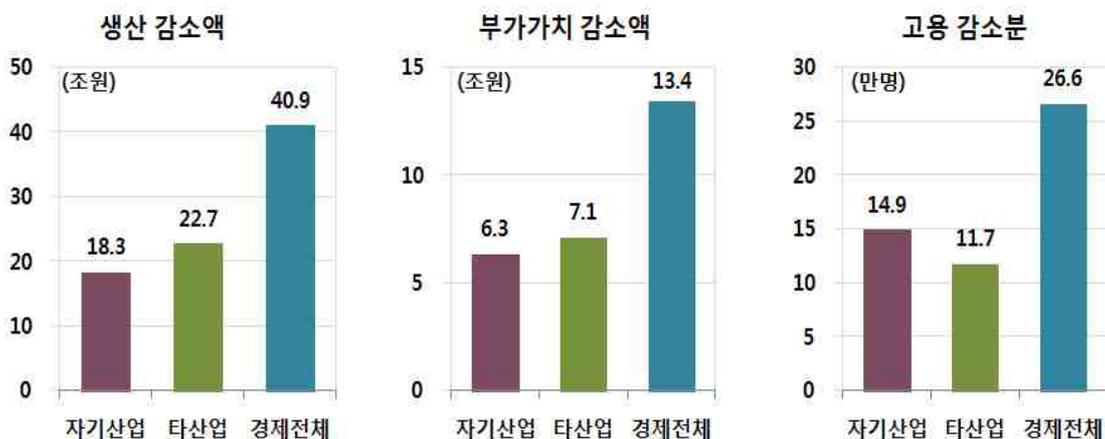
- 건설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13조 4,000억 원의 부가가치 감소 효과가 유발

· 자기 산업의 부가가치 감소액은 6조 3,000억 원이며 타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 감소액은 7조 1,000억 원임

- 건설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26만 6,000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유발

· 자기 산업의 고용 감소분은 14만 9,000명이며 타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고용 감소분은 11만 7,000명임

< 건설업의 최종수요 10% 위축시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감소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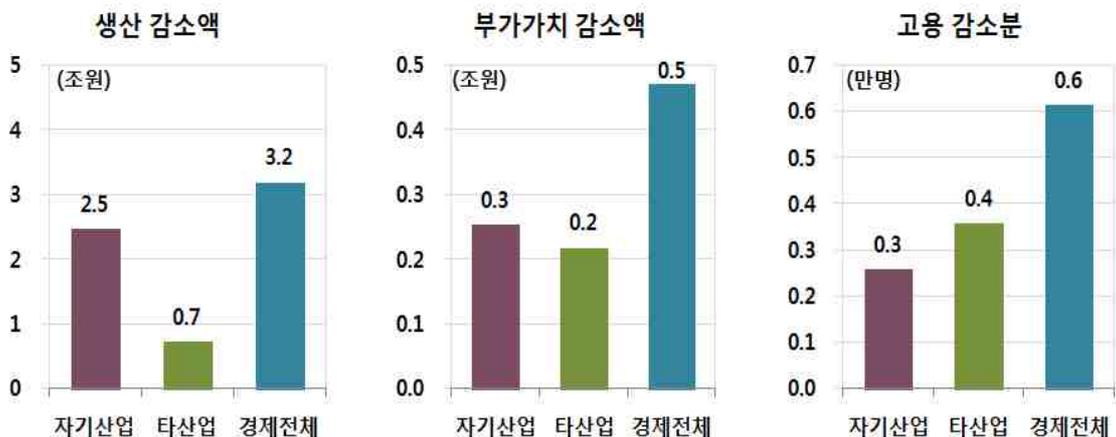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산업연관표를 29 부문으로 자체 부문통합하여 계산된 수치.

- (해운업) 해운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3조 2,000억 원의 생산 감소, 5,000억 원의 부가가치 감소, 6,000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유발
 - 해운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3조 2,000억 원의 생산 감소 효과가 유발
 - 자기 산업의 생산 감소액은 2조 5,000억 원이며 타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생산 감소액은 7,000억 원임
 - 해운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5,000억 원의 부가가치 감소 효과가 유발
 - 자기 산업의 부가가치 감소액은 3,000억 원이며 타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 감소액은 2,000억 원임
 - 해운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6,000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유발
 - 자기 산업의 고용 감소분은 3,000명이며 타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고용 감소분은 4,000명임

< 해운업의 최종수요 10% 위축시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감소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산업연관표를 29 부문으로 자체 부문통합하여 계산된 수치.

4. 시사점

- 취약 부문에 대한 산업구조조정은 경쟁력 강화와 경제 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분명함. 다만 산업구조조정의 대상 산업들이 경제의 주력 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임

첫째, 주력 산업들이 대부분인 취약 부문 구조조정으로 예상되는 ‘산업 공백기’를 단축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 산업별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과잉공급 업종에 대한 신중한 선정과 접근이 요구됨
-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시장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신속성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부서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해 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둘째, 구조조정 산업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나 더불어 그 구조조정이 간접 경로를 통해 파급되면서 나타나는 후방연관 산업의 부침에 주목해야 한다.

- 산업구조조정은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중간재 거래로 연결되어 있는 후방 산업의 구조조정까지를 의미
- 따라서 산업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구조조정 대책의 범위는 후방 연관산업의 생산활동과 고용의 침체까지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셋째, 구조조정의 가장 큰 부작용인 실업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한 적극적인 고용안정책이 필요하다.

- 산업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한 전직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취약 업종이 지역 기반 산업일 경우 상대적으로 재원의 한계를 가지는 지자체를 대신하여 중앙정부의 신속한 지원 시스템이 요구됨

넷째, 가장 큰 과급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 구조조정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구축되어야 한다.

- 당장 어려움을 겪지는 않겠으나 가까운 시간 내 시장의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건설업의 경기 상황과 산업 내 기업들의 안정성에 대한 점검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성장 및 고용 비중을 고려해 볼 때, 고부가·고기술 부문으로의 산업 고도화까지를 포함한 구조조정 및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함

다섯째, 산업구조조정의 무게중심을 주력산업군의 복구될 수 없는 경쟁력 하락에 대응한 생산능력 축소가 아니라, 주력산업군을 신산업으로 채우는 구조재편(restructuring)에 두어야 한다.

- 우선 구조조정정책의 중점은 부실징후기업의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상기업의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이 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 산업정책의 무게중심이 기활법에 있어야 한국 경제와 산업계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음
 - 구조조정과 관련된 주된 정부정책은 『통합도산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기업활력법(이하 기활법)』 등이 있음
 - 이중 통합도산법은 부실기업에 대한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 관련 제도이며, 기촉법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제도임
 - 반면 최근 도입한 기활법은 신용등급 A, B의 정상 기업의 과잉공급(예상)

- 사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임
 - 다만 현실적으로 정상기업의 입장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동기 유발이 쉽지 않고 새로운 사업 분야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활법이 실효성을 가질 것인지는 불확실함
 - 특히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산업에 상당 부분 대기업이 진출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채무 보증 특례 등의 적용을 금지한 것은 기활법의 효과를 반감시켰다고 생각됨
- 나아가 사업 구조조정이 아닌 더 큰 틀에서의 산업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는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 기업들이 공감하고 적극적인 동참이 가능한 구체적인 신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함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부록 1】 본 보고서에서의 25부문 분류

본 보고서의 산업 명칭		통합중분류 82 부문
1	1차산업	작물 (1), 축산물 (2), 임산물 (3), 수산물 (4), 농림어업 서비스 (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6), 금속 및 비금속광물(7)
2	경공업	식료품 (8), 음료품 (9), 담배 (10), 섬유 및 의복 (11), 가죽제품 (12), 목재 및 목제품 (13), 펄프 및 종이제품 (14), 인쇄 및 복제 (15), 플라스틱 제품 (23), 고무제품 (24),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45)
3	석유정제	석탄 및 석유제품 (16)
4	취약 산업	기초화학물질 (17),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18), 화학섬유 (19), 철강1차제품 (27), 철강가공제품 (28), 선박 (43),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51), 토목건설 (52), 수상운송서비스 (55)
5	정밀화학	의약품 (20), 비료 및 농약 (21), 기타 화학제품 (22)
6	비금속광물	유리 및 유리제품 (2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26)
7	비철금속 및 금속제품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29), 금속 주물 (30), 금속제품 (31)
8	기계	일반목적용기계 (32), 특수목적용기계 (33)
9	전기전자기계	전기장비 (34), 반도체 (35), 전자표시장치 (36), 기타 전자부품 (37), 컴퓨터 및 주변기기 (38),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39)
10	가전	가정용 전기기기 (40)
11	정밀기기	정밀기기 (41)
12	자동차	자동차 (42)
13	기타운송장비	기타 운송장비 (44)
14	인프라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46), 가스, 증기 및 온수 (47), 수도 (48), 폐수처리 (49),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서비스 (50)
15	도소매 및 음식숙박	도소매 서비스 (53),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58)
16	운수	육상운송서비스 (54), 항공운송서비스 (56), 창고 및 운송보조 서비스 (57)
17	ICT서비스	통신서비스 (59), 방송서비스 (60), 정보서비스 (61),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관리서비스 (62), 출판서비스 (63), 영상, 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 (64)
18	금융보험	금융서비스 (65), 보험서비스 (66), 금융 및 보험 보조서비스 (67)
19	부동산 및 임대	주거서비스 (68), 부동산서비스 (69),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70)
2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연구개발 (71),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72), 과학기술관련 전문 서비스 (73)
21	사업지원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 (74)
22	공공행정 및 국방	공공행정 및 국방 (75)
23	교육서비스	교육서비스 (76)
24	보건 및 사회복지	의료 및 보건 (77) 사회복지 서비스 (78)
25	문화 및 기타서비스	문화서비스 (79),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80), 사회단체 (81), 수리 및 개인 서비스 (8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산업연관표상 통합중분류 82부문을 25부문으로 자체 부문통합.

【부록 2】 본 보고서에서의 29부문 분류

본 보고서의 산업 명칭		통합중분류 82 부문
1	1차산업	작물 (1), 축산물 (2), 임산물 (3), 수산물 (4), 농림어업 서비스 (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6), 금속 및 비금속광물(7)
2	경공업	식료품 (8), 음료품 (9), 담배 (10), 섬유 및 의복 (11), 가죽제품 (12), 목재 및 목제품 (13), 펄프 및 종이제품 (14), 인쇄 및 복제 (15), 플라스틱 제품 (23), 고무제품 (24),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45)
3	석유정제	석탄 및 석유제품 (16)
4	기초화학	기초화학물질 (17),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18), 화학섬유 (19)
5	정밀화학	의약품 (20), 비료 및 농약 (21), 기타 화학제품 (22)
6	비금속광물	유리 및 유리제품 (2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26)
7	철강	철강1차제품 (27), 철강가공제품 (28)
8	비철금속 및 금속제품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29), 금속 주물 (30), 금속제품 (31)
9	기계	일반목적용기계 (32), 특수목적용기계 (33)
10	전기전자기계	전기장비 (34), 반도체 (35), 전자표시장치 (36), 기타 전자부품 (37), 컴퓨터 및 주변기기 (38),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39)
11	가전	가정용 전기기기 (40)
12	정밀기기	정밀기기 (41)
13	자동차	자동차 (42)
14	선박	선박 (43)
15	기타운송장비	기타 운송장비 (44)
16	인프라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46), 가스, 증기 및 온수 (47), 수도 (48), 폐수처리 (49),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서비스 (50)
17	건설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51), 토목건설 (52)
18	도소매 및 음식숙박	도소매 서비스 (53),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58)
19	해운	수상운송서비스 (55)
20	운수	육상운송서비스 (54), 항공운송서비스 (56), 창고 및 운송보조 서비스 (57)
21	ICT서비스	통신서비스 (59), 방송서비스 (60), 정보서비스 (61),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관리서비스 (62), 출판서비스 (63), 영상, 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 (64)
22	금융보험	금융서비스 (65), 보험서비스 (66), 금융 및 보험 보조서비스 (67)
23	부동산 및 임대	주거서비스 (68), 부동산서비스 (69),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70)
2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연구개발 (71),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72), 과학기술관련 전문 서비스 (73)
25	사업지원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 (74)
26	공공행정 및 국방	공공행정 및 국방 (75)
27	교육서비스	교육서비스 (76)
28	보건 및 사회복지	의료 및 보건 (77) 사회복지 서비스 (78)
29	문화 및 기타서비스	문화서비스 (79),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80), 사회단체 (81), 수리 및 개인 서비스 (8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통합중분류 82부문을 25부문으로 자체 부문통합. **HRI**